

만화선사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

THREE ZEN MASTERS OF ODAESAN MOUNTAIN

유품과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오대산 三大和尚

한암중원 · 탄허택성 · 만화희찬

2022.
07. 29.
—
2023.
03. 3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정보박물관



한암중원 漢巖重遠

Buddhist monk Hanam Jungwon

1876 – 1951

“깨달은 뒤의 주의할 점은 깨닫기 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깨달은 뒤에 만일 정밀히 수행하지 않아 태타(怠惰, 게으름)에 빠지면 여전히 생사에 유랑(流浪)하여 영영 헤어 나올 기약이 없게 됩니다.”

한암 선사, 경봉 화상에게 보낸 서한 中 (1928)

한암 선사는 한국 불교의 선종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불교를 중흥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승이자 학승인 한암 선사는 참선을 중시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함께 갖추어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불교는 총독부의 한국불교 합병야욕으로 왜색불교의 영향과 세속화 등 처참하게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암 선사는 한국불교를 계몽하고 전통 회복과 통합에 힘썼으며, 1941년 조계종이 새로 출범할 때 초대종정을 역임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군이 퇴각하며 상원사를 불태우려 하자 죽음을 불사하고 절을 지켜낸 일화에서도 선사의 수행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51년 3월 21일 법랍 55세, 세수 76세로 좌탈하셨습니다.

1 상원사 동안거 기념 (1938)

1938년 12월 6일 오대산 상원사 동안거 기념 사진입니다.

당시 상원사에는 1936년 6월부터 강원도 삼본산(월정사, 유점사, 건봉사) 연합 승려 수련소가 설치되어 약 20~30명가량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특히 1938년에는 약 1년 동안 화엄산림법회華嚴山林法會가 있어 탄옹, 서옹 등 여러스님들이 청강하셨습니다. 당시 한암 스님은 63세(만62세)였고, 탄허 스님은 26세로 상원사로 입산한 지 4년째 되던 해로, 삼본산 수련소에서 중강을 맡고 있었습니다.

앞줄 우측부터 다섯 번째가 한암 스님이며, 여섯 번째 탄옹정혜炭翁正慧(1890~1947)스님, 한암 스님 바로 뒤에 서 있는 젊은 스님은 전 조계종 종정 서옹西翁(1912~2003)스님이고, 서옹 스님 바로 뒤에 안경을 쓴 스님이 탄허 스님입니다. 서옹 스님 오른쪽 옆은 고암 스님으로 추정됩니다.

2 적멸보궁에서 동자승과 함께

1



2



3 상원사 금강계단 기념 (1940)

1940년 9월 23일 상원사 금강계단 비구계(구족계), 보살계, 사미계 수계식 기념사진입니다. 좌측 앞은 사진으로부터 여섯 번째가 한암 스님입니다. 당시 65세(만64세)로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기 1년 전입니다. 한암 스님 좌측 첫 번째는 당시 상원사 입승 탄옹 스님이고, 두 번째는 고암, 다섯 번째가 탄허 스님(1935년 입산)입니다. 뒷줄 좌측에서 세 번째는 보경희태 스님(1935년 입산)이고, 네 번째는 1939년 입산한 만화희찬 스님입니다.

4 한암선사 좌탈 (1951. 3. 21)

앉아서 참선한 채로 열반하신 스님의 모습이 당시 국군 정훈장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평생을 흐트러짐 없으셨던 선사로서의 일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3



4



1 일월도자수홍가사 (조선말~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제 645호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을 모시던 김상궁이 직접 수를 놓아 한암 스님에게 공양한 가사로 금실로 수놓은 두 개의 원문양 안에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三足鳥와 달을 상징하는 토끼를 수놓았으며 모란문을 가득 채워 정성어린 마음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2 발우

한암 스님 열반 후 남긴 발우로 스님의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1



2



3 한암 선사 친필 중봉 법사 법어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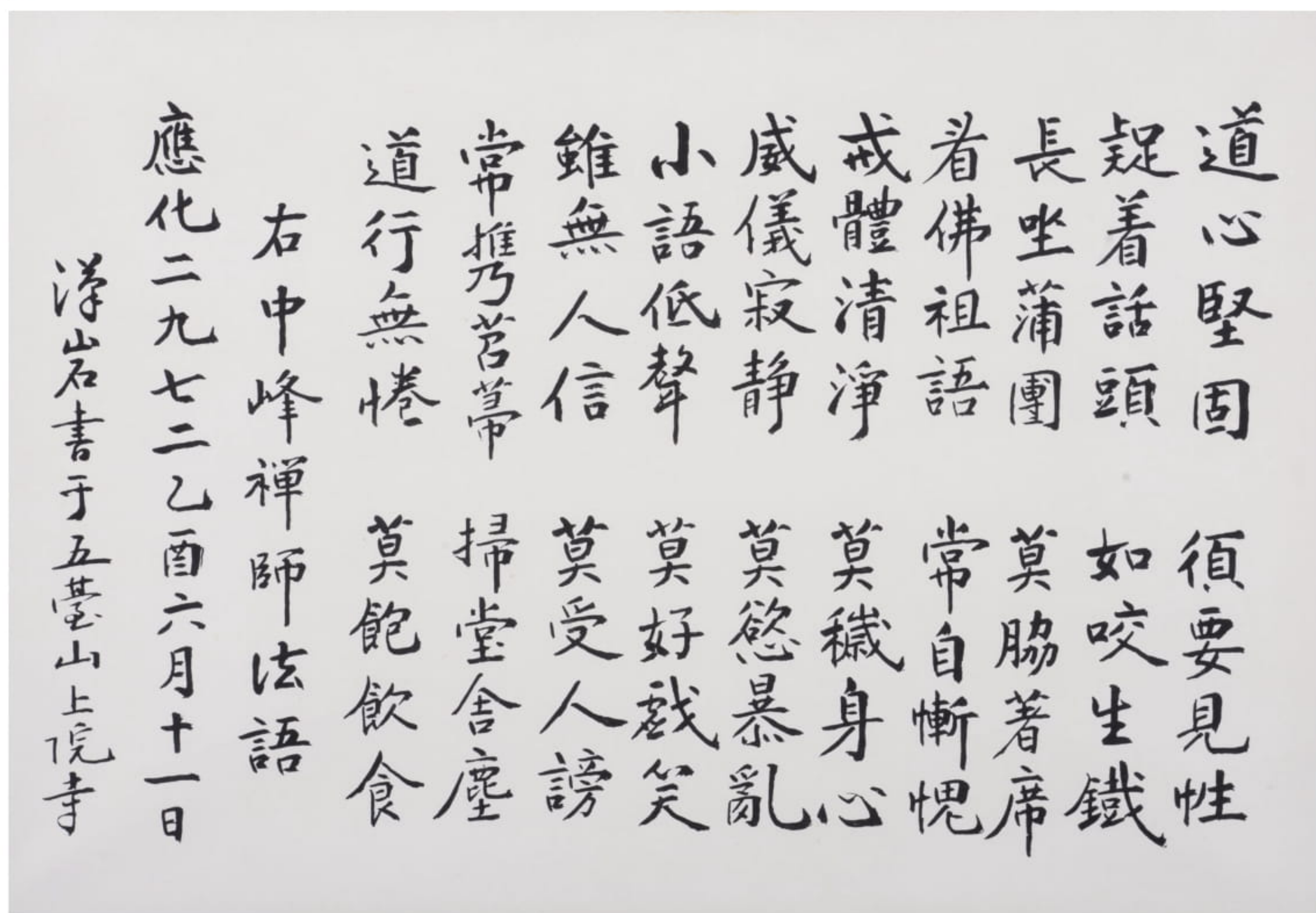
이 법어는 한암 스님이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친필로 쓴 것입니다.

4 경봉 화상에게 답하는 편지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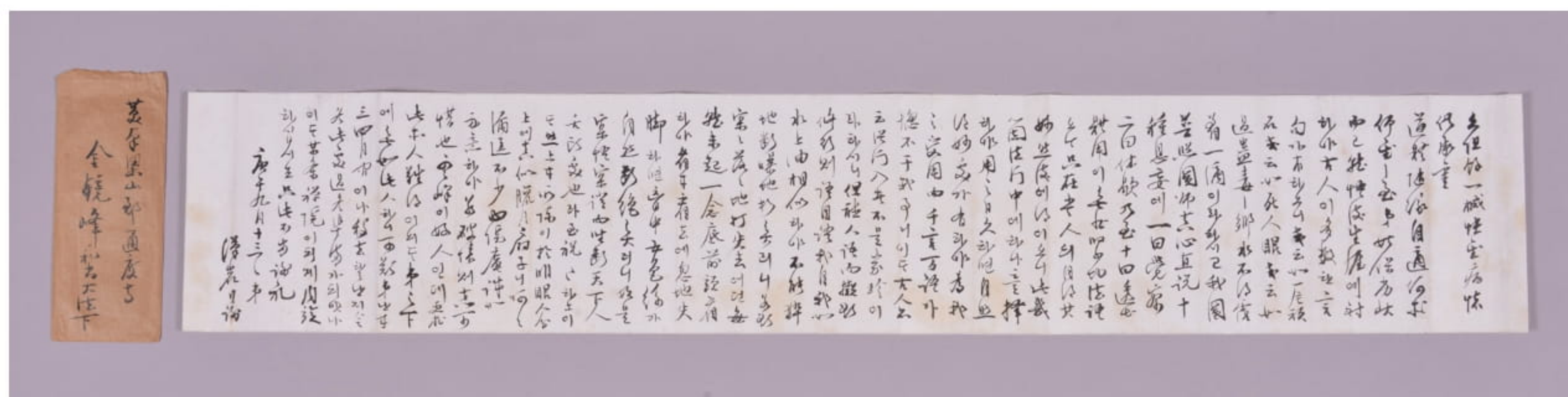
한암 스님은 1928년부터 1949년까지 경봉 스님과 서신으로 문답하며 도심으로 교류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하며 내용은 대부분 선 수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경봉 스님이 깨달음 이후의 수행에 대하여 질문한 것에 대한 답서입니다.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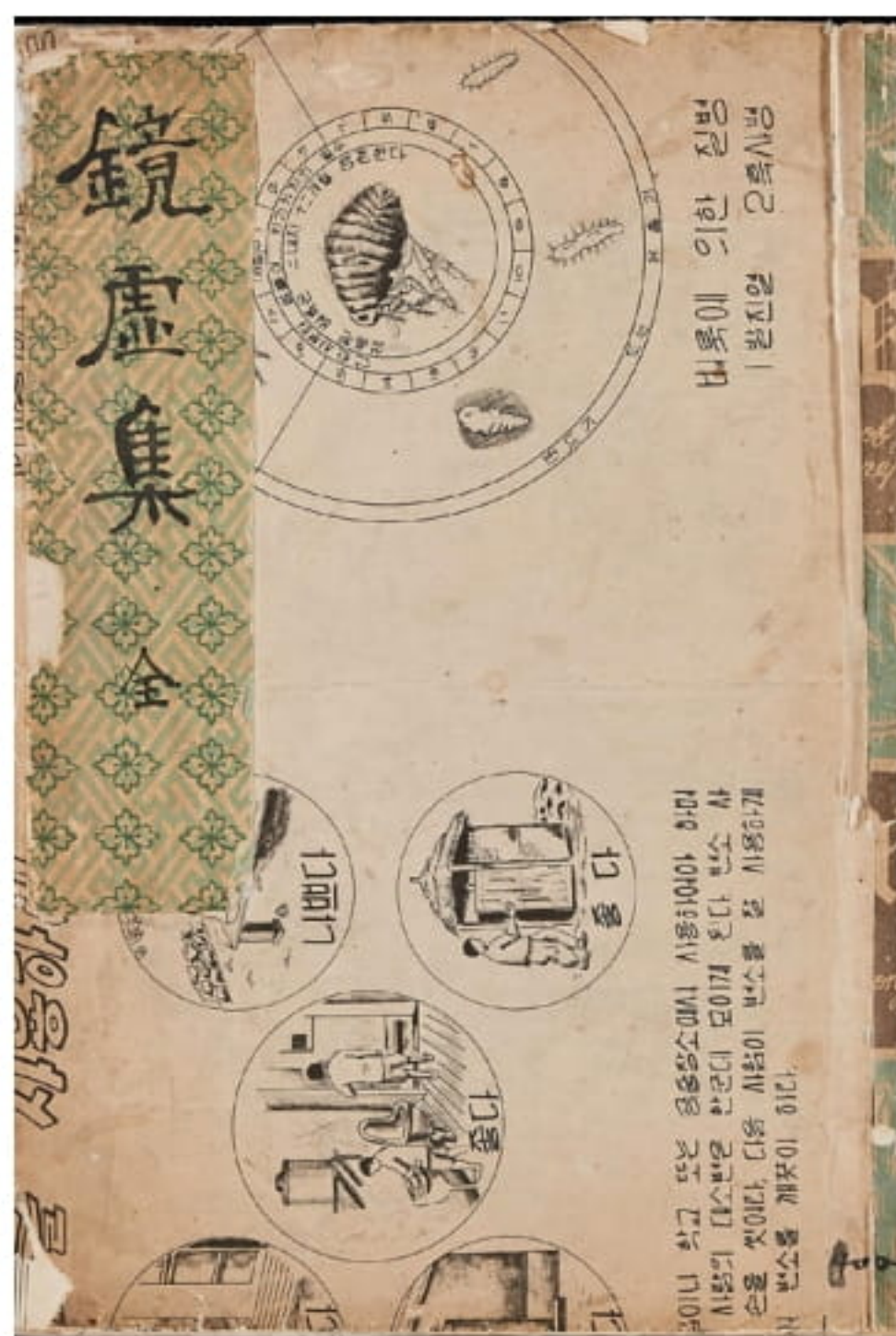
5 경허집 (1931)

한암 스님의 스승인 경허 스님(1871-1946)의 생애와 사상, 시문 등을 담은 책인 경허집을 발간하기 전 한암 스님이 친필로 필사한 원고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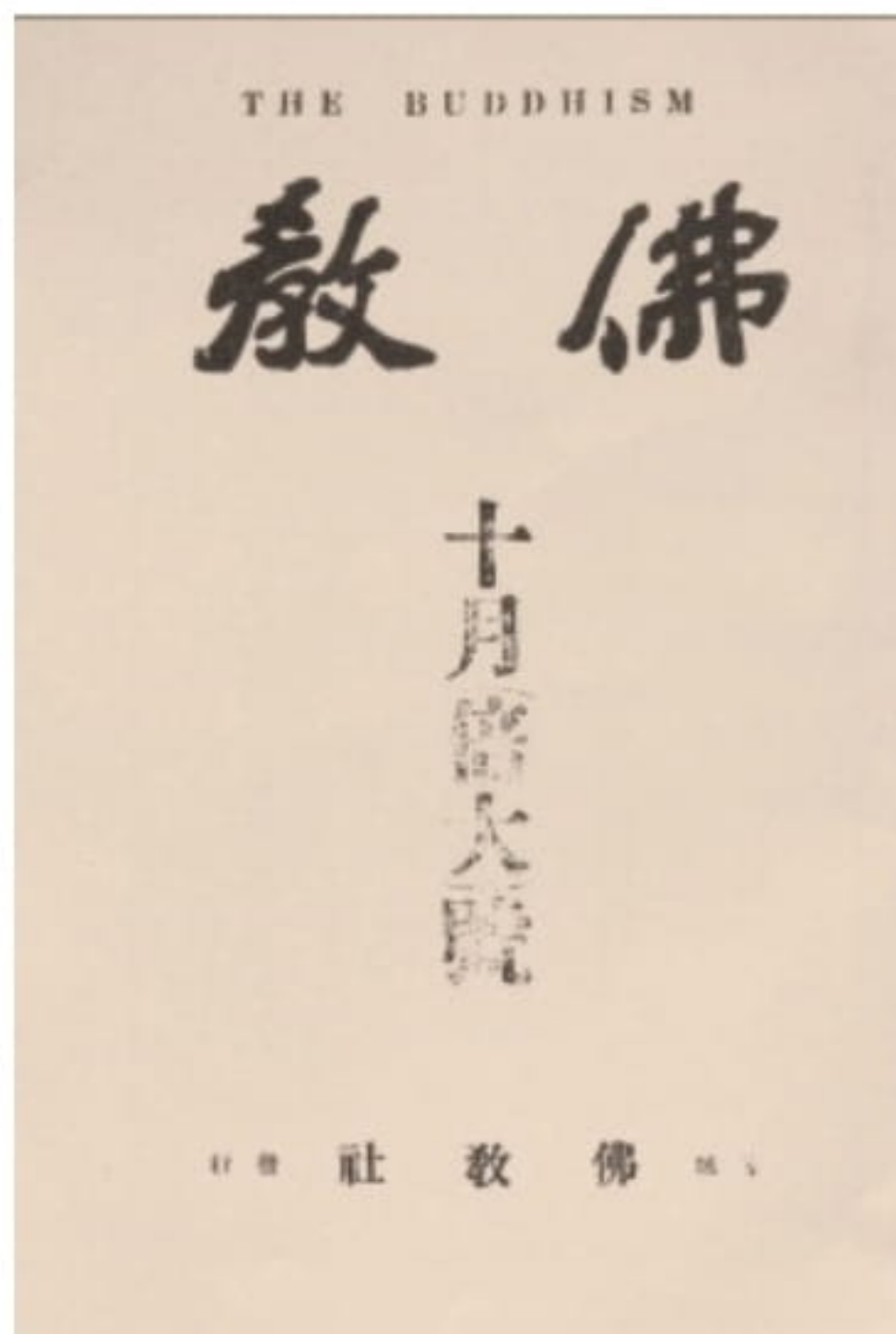
6 『불교』 100호 참선에 대하여 (1932)

월간 『불교』 100호(1932년 10월호)에 발표한 「참선에 대하여」라는 기고문입니다.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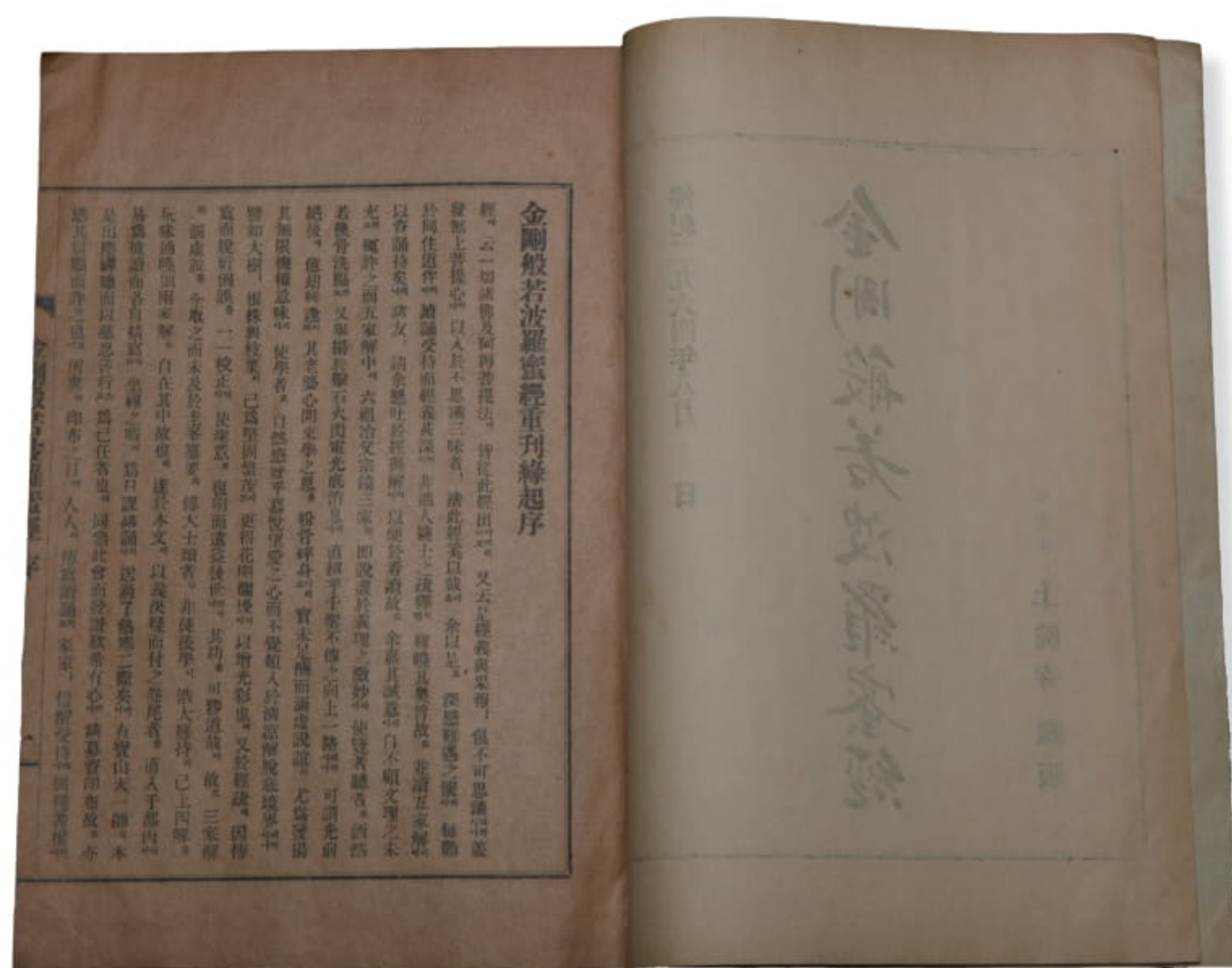


7 금강경 (1937)

1937년 월정사에서 간행한 책으로 한암 스님이 발간 서문을 쓰고, 탄허 스님이 발문을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글 언해본을 발간하고 한국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7



大圓庵



탄허택성 呑虛宅成

Buddhist monk Tanheo Taeksung

1913 – 1983

학해무변(學海無邊).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

탄허 선사는 근현대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불유도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선사는 10대 시절 기호학과 학통을 이은 이극종을 스승으로 한학연구에 매진하였으며 22세때 한암 선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암 선사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를 불교학 연구와 교육 활동, 불교의 중흥으로 펼치고자 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어 전소된 월정사를 중건했으며 교육만이 한국 불교의 미래라는 신념 속에 오대산 승려연합수련원(1936), 오대산 수도원(1956)을 통한 교육사업과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평생을 걸고 이룩한 화엄경 및 여러 불교 경전 번역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뜻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화엄경 합론 완간(1975)으로 이루어낸 화엄학 연구성과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1983년 6월 5일 세수 71세, 법랍 49세에 입적하셨습니다.

1 출가 전 유생 모습의 탄허 선사 (1932년)

충남 보령군 죽포면 송악리 서당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출가 2년 전(1932) 20세 때 갓을 쓴 유생의 모습입니다.

탄허 스님은 독립운동가 율재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기호학파의 학통을 이은 이극종을 스승으로 한학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22세(1934)때 한암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 방산굴에서 제자들과 함께 (1966년 2월)

1966년 2월 방산굴에서 탄허 스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앉은 위풍당당한 모습의 탄허 스님과 그 뒤 좌측으로부터 인보(금몽암 주지), 양운(월정사 재무 역임), 삼보(법흥사 주지, 당시 시봉), 삼지(대전 자광사 주지), 법달, 법등(제2석굴암 주지) 스님입니다.

방산굴方山窟은 『화엄론華嚴論』(40권)을 저술한 이통현李通玄(635~730) 거사가 주석했던 토굴 이름으로 만화 스님이 은사 탄허 스님을 위하여 낙성했고, 탄허 스님은 이 방산굴에서 『신화엄경합론』을 완역했습니다.

1



2



3



3 보문난야에서 탄허 선사 (1973)

1973년 보문난야普門蘭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문난야는 탄허 스님께서 최초로 마련한 토굴로 서울 동대문구 석관동에 있었고 화엄경 출판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약 30평 규모의 일반주택이었습니다. 난야蘭若는 아란야阿蘭若의 준말로 한적한 수행처라는 뜻입니다.

앞줄 좌측부터 만화, 탄허, 법안, 윤희, 진관 스님

뒷줄 좌측부터 동성, 현해, 유해룡 스님, 윤창화(당시 시자)

4 화엄경 특강 장면 (1977. 12. 25 ~ 1978. 2. 21)

강단의 탄허 스님과 뒷줄 능혜, 봉주 스님

5 『신화엄경합론』 완간기념 제1회 화엄대법회 (1977. 12. 25 ~ 1978. 2. 21)

월정사에서 열린 탄허 스님의 『화엄경』 특강 대법회는 스님의 생애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1열 우측 두 번째 성일, 세 번째 현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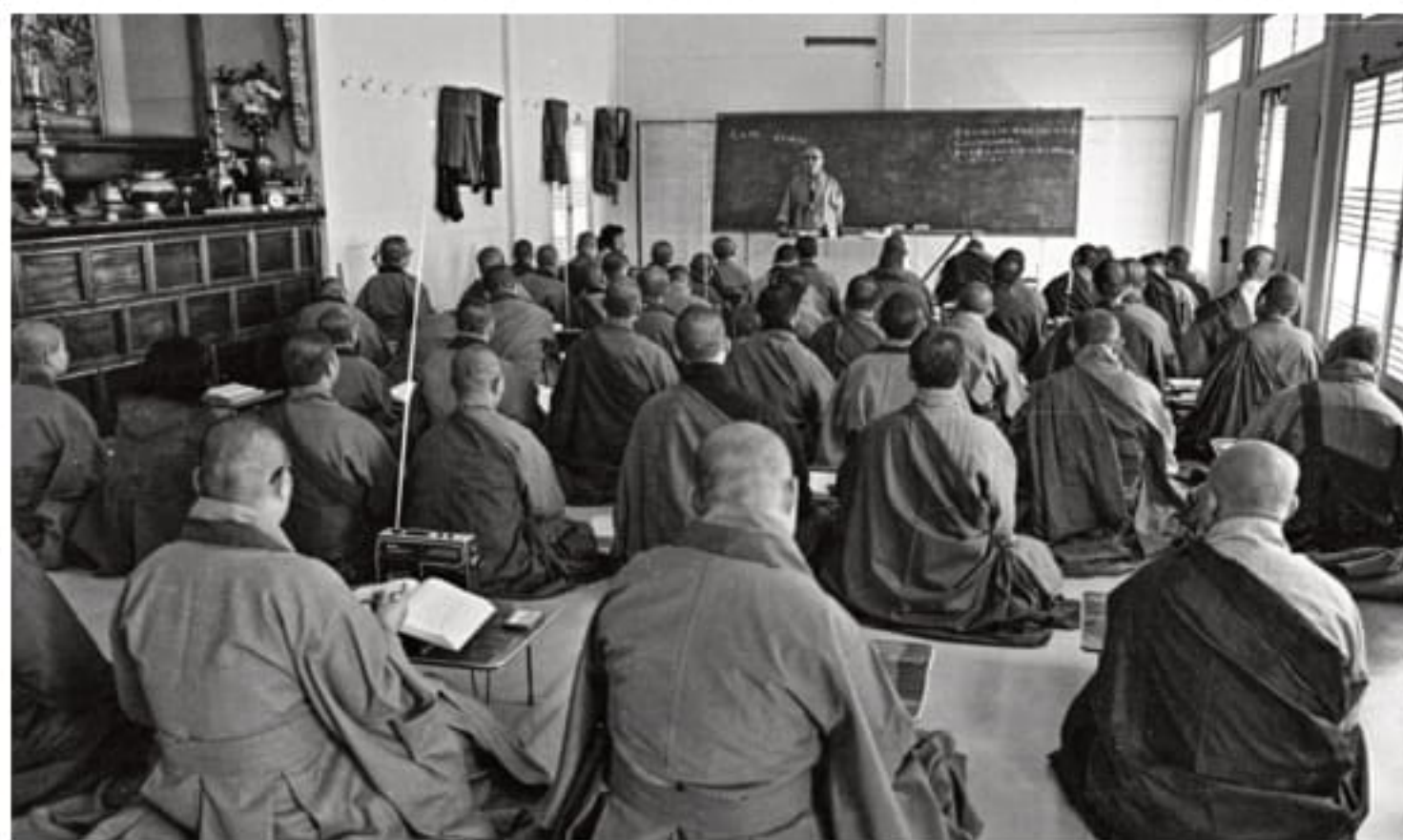
2열 중앙 탄허 선사와 왼쪽 만화, 오른쪽 봉주 스님

3열 우측 두 번째 백강, 네 번째 지환 스님, 왼쪽 세 번째 정우 스님

4열 좌측 첫 번째 원행 스님 그 뒤로 우측 선과 스님

5열 좌측 두 번째 명안, 다섯 번째 각수 스님

4



5



華嚴法會 大眾

6 대한불교조계종 4교구 본말사 주지총회 (1965)

1965년 2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말사 주지총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한 것입니다.

앞줄 좌로부터 일곱 번째는 당시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 주지 도문 스님이고, 두 번째 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영은사 주지 보경 희태 스님, 여섯 번째 삼화사 주지 성암(유해룡) 스님, 일곱 번째 탄허 스님, 열한 번째 입석사 주지 법해 스님입니다. 그리고 맨 뒷줄 우측에서 두 번째는 만화 스님, 세 번째는 시은 스님, 다섯 번째는 희섭 스님입니다.

7 이리역 폭발참사 이재민 돕기 선서화전 개최 (1977)

1977년 11월 전북 이리역(현 익산역)에서 발생한 열차폭발사고로 사망 59명, 부상자 1,158명, 이재민 7,800명의 대형 참사 후 이재민 돕기 서도전을 개최했으며 수익금을 전액 희사하셨습니다.

6



7



8



8 미국 세계고승대법회에서 (1982)

좌측부터 현각, 00, 능혜, 탄허, 청우, 무비 스님

1982년 9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평화 고승대법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탄허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9 탄허선사 다비식 (1983)

10 탄허 선사 다비식에 운집한 대중들 (1983)

9



10



1 탄허 선사의 원고와 당시 사용했던 경상과 자전, 필기구, 녹음기

2 오대산수도원 원훈 五臺山修道院 元訓 (1956)

1956년 한국불교와 한국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오대산수도원을 설립한 후 작성한 원훈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견고해야 함

둘째는 계를 범하지 말 것

셋째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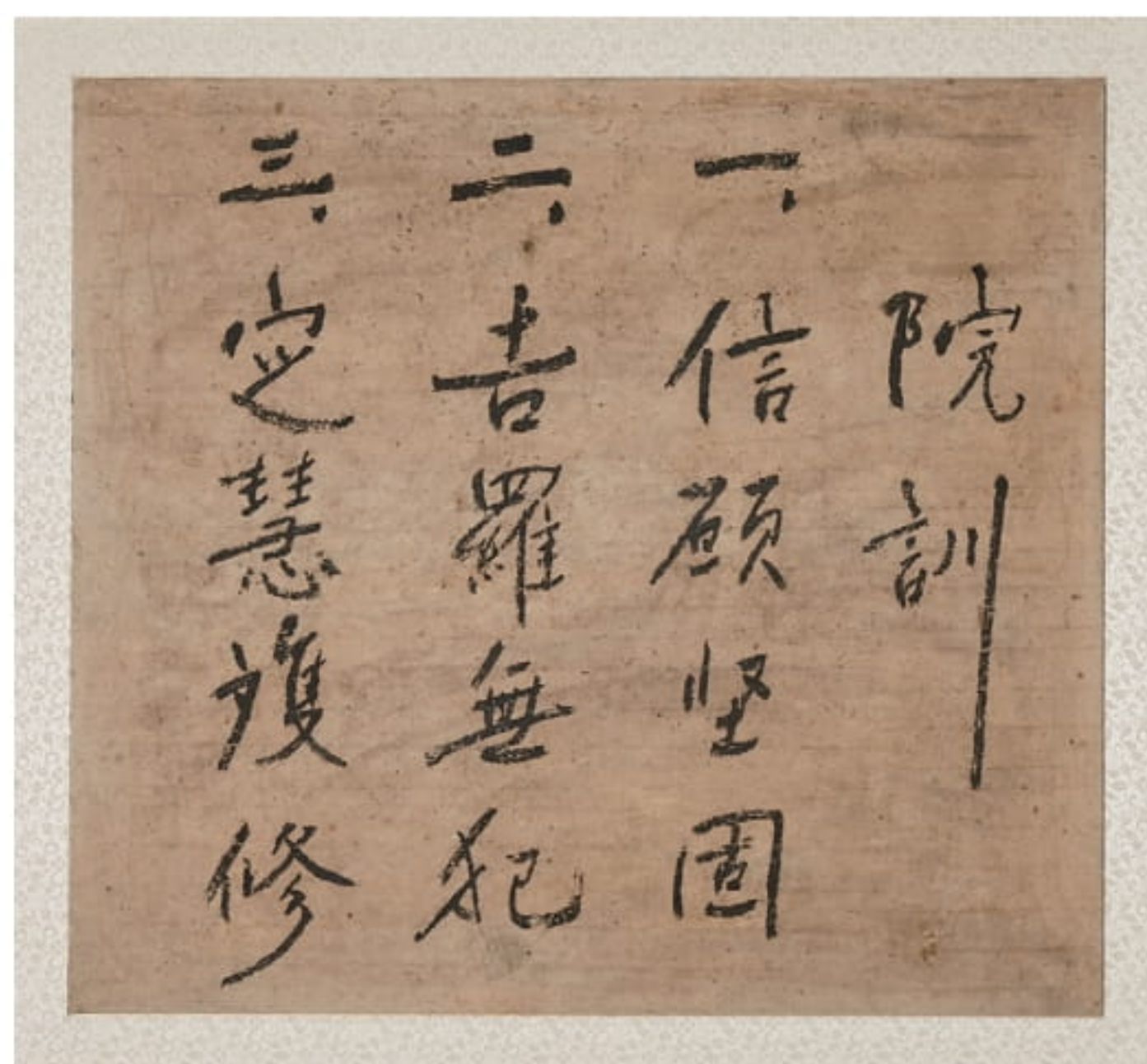
3 『신화엄경합론 新華嚴經合論』 (1975)

탄허 스님은 18년에 걸쳐 방대한 양의 화엄경과 화엄론 번역작업에 힘써 1967년 완역하였고, 1975년 『신화엄경합론』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



2



3



4 선문일점목 서문 (1977)

탄허 스님이 쓴 경봉 스님의 서첩 선문일점목의 서문

5 2폭 병풍 도계 道契 (1977)

도道가 합하면 하늘과 땅도 하나이고, 뜻이 다르면 마주보고 있어도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와 같다.

이 의미로 만나 담론談論 할 수 있는 이는 천만인 가운데 그대 한 사람 뿐이다.

초당 선생을 위하여 쓰다. - 정사년 봄 탄허

6 판치생모 板齒生毛 (1970년대)

앞니에서 털이 솟아 나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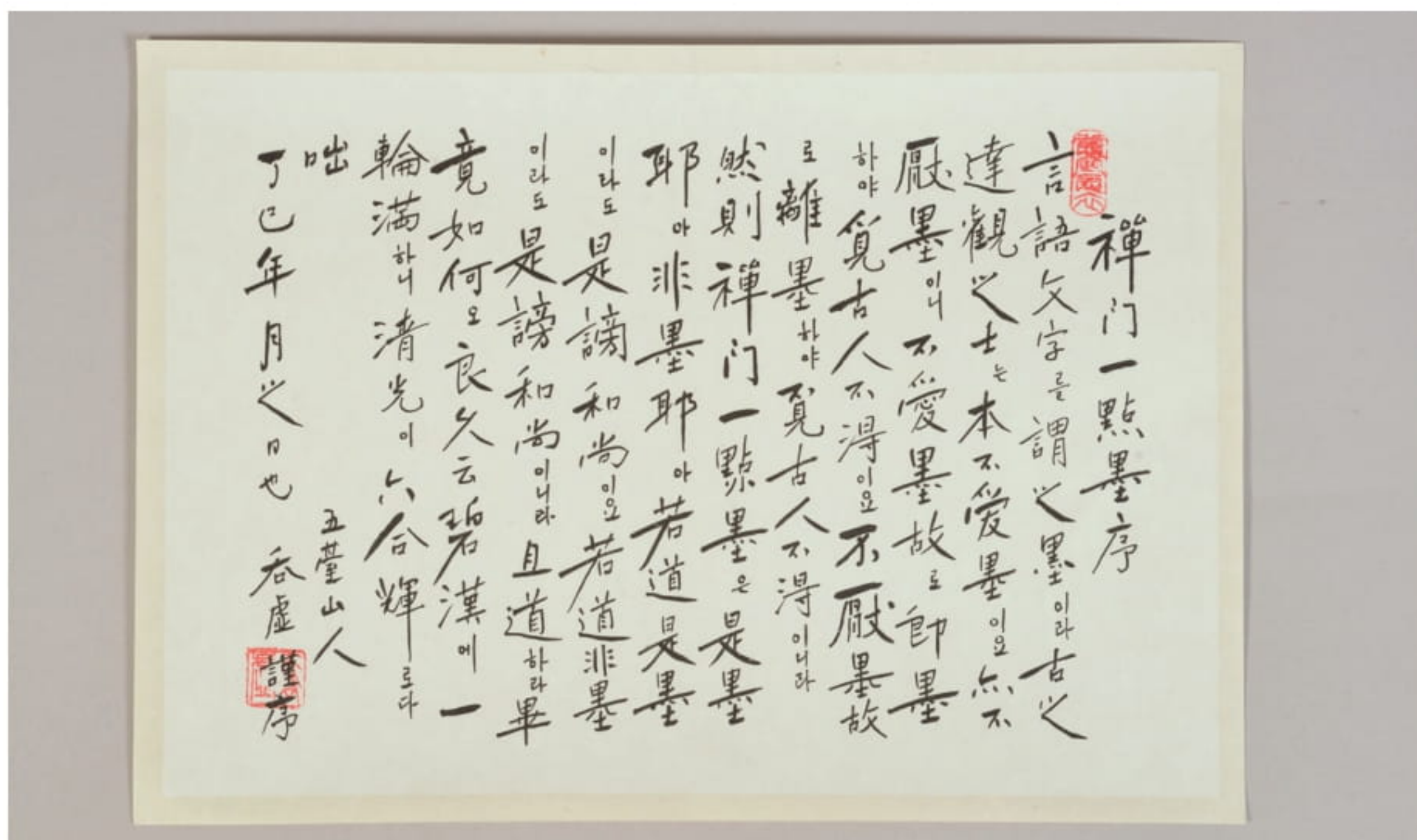
말을 하지않고 묵언 정진함을 뜻하는 것으로 불교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7 향상일로 向上一路 (197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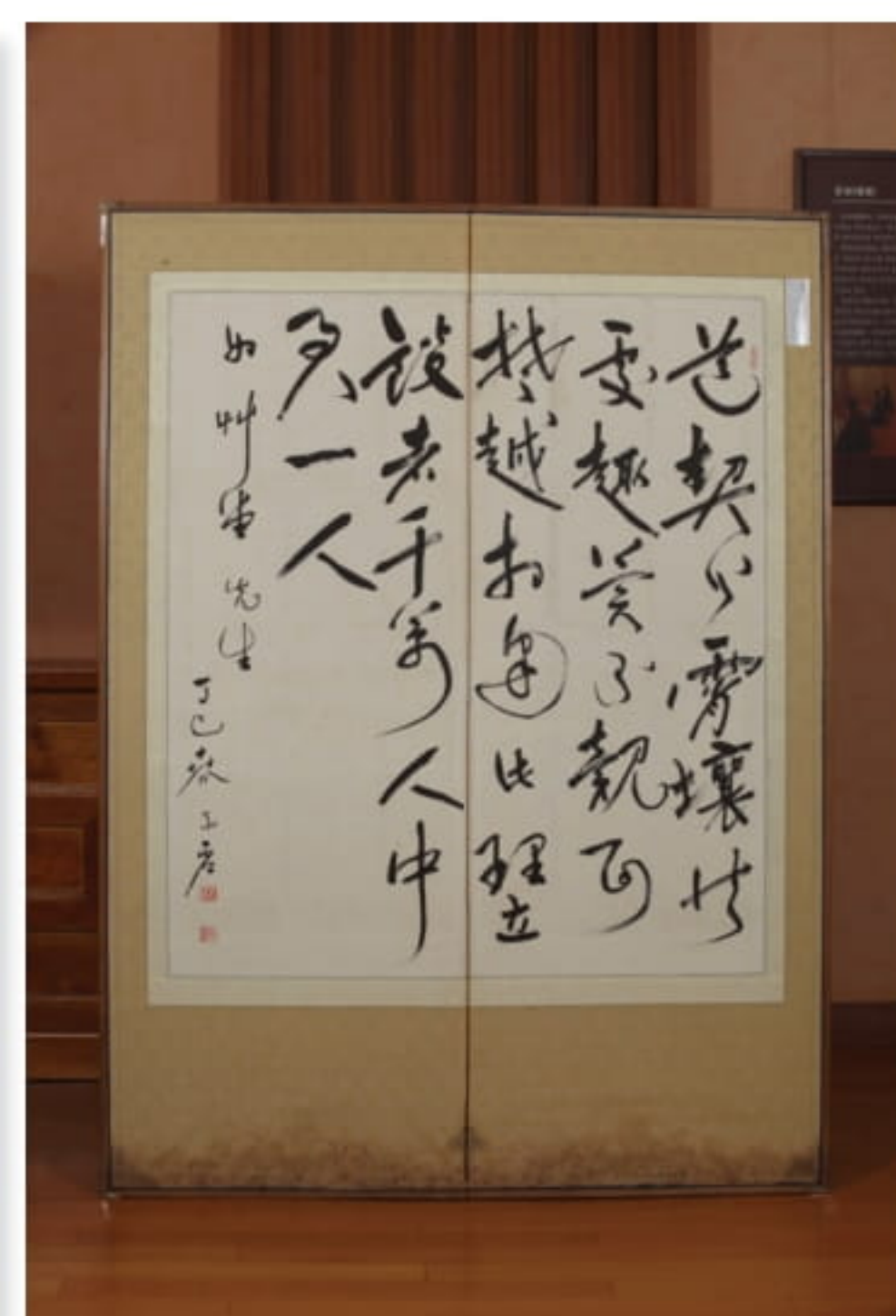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는 하나의 길

즉, 법신法身(진여眞如)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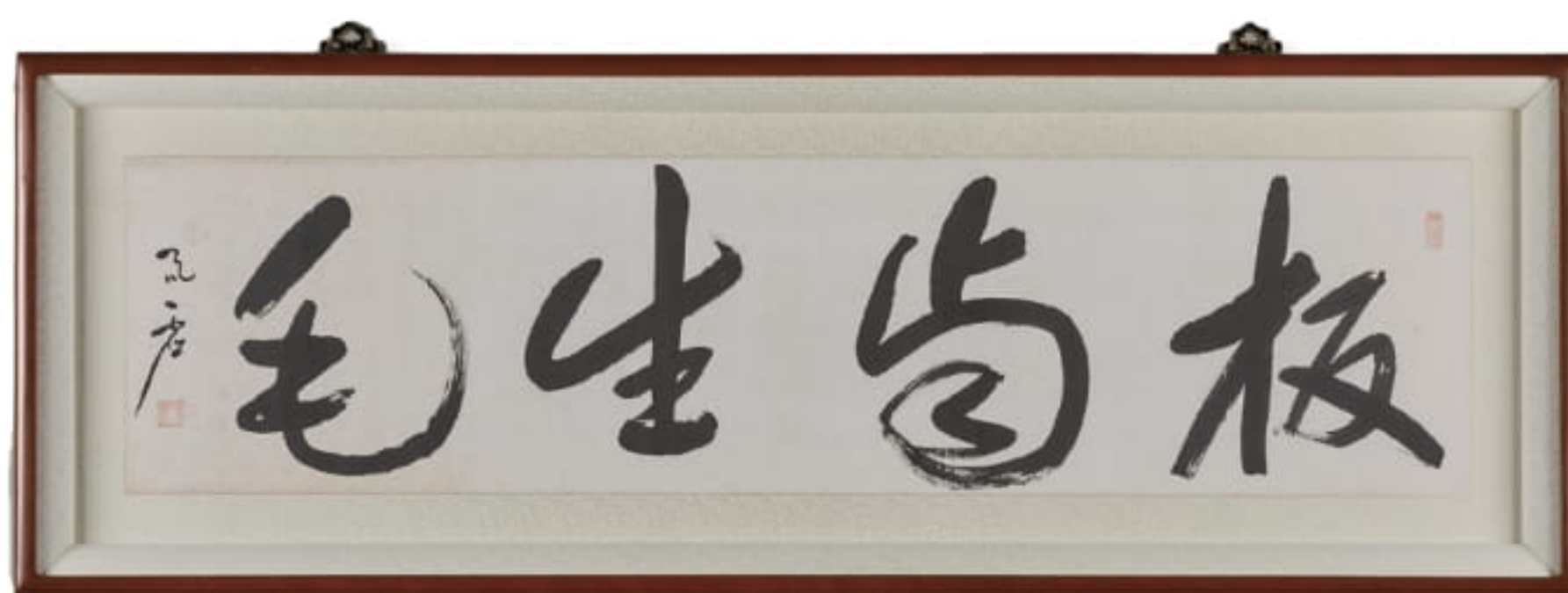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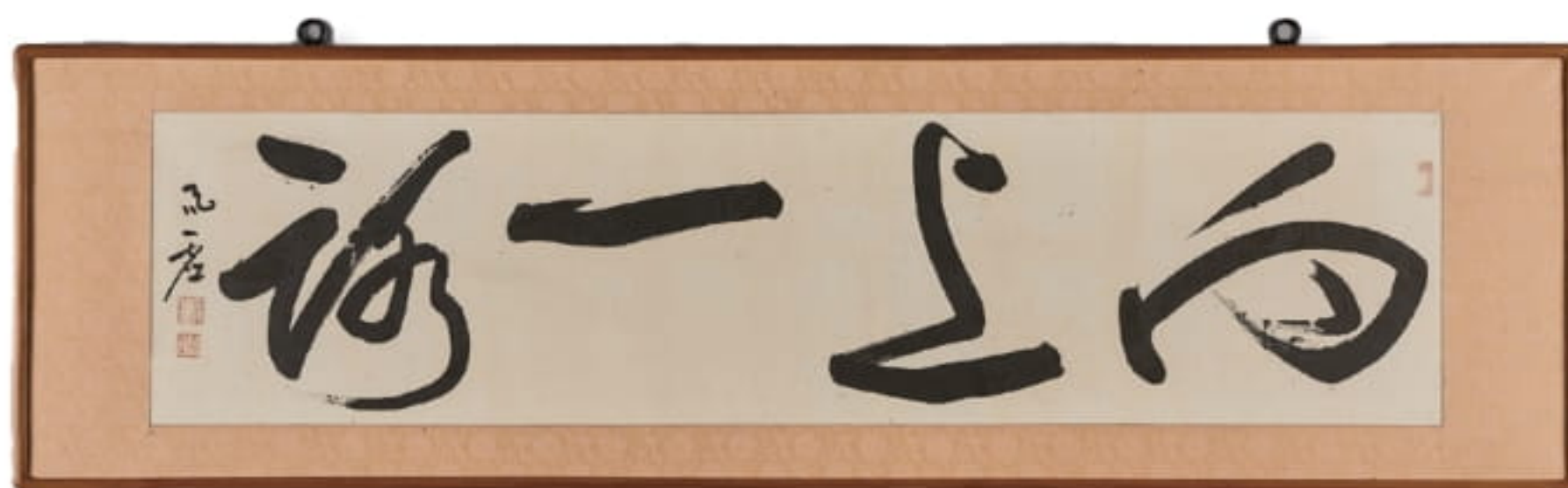
5



6



7





만화희찬 萬化喜贊

Buddhist monk Manhwa Heuichan

1922 – 1983

불교정화운동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 정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부처님법이 땅에 떨어지니 언제 올바른 정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불교정화운동(1954-1962) 中 만화선사 법어

만화 선사는 오늘날의 월정사 대가람을 일궈낸 주역으로 한암 선사의 승가오칙을 계승하여 한국전쟁 과정 중 전소된 월정사와 오대산을 중창하고 스승인 탄허 선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현실적으로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사는 평안북도 덕천군 풍덕면 풍덕리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여 일찍부터 문리를 터득하였으며, 1939년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탄허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습니다.

오대산수련원을 졸업하고 참선수행에 전념한 뒤 1945년 상원사 총무, 1953년 상원사 주지 소임을 거쳐 1954년 불교정화운동에 앞장섰으며, 1956년 월정사 주지에 취임한 뒤 오대산수도원을 설립하여 승려의 자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불타버린 가람의 복구를 통한 월정사 재건에 힘썼습니다. 1962년 동별당과 방산굴을 중건하고 1969년에는 적광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이후 천왕문, 보장각, 진영각, 서별당, 용금루, 해행당, 설선당 등 월정사 대가람을 완성하여 오대산문의 중창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1981년 8월 월정사의 회주로 추대되었으며, 1983년 12월 11일 세수 62세, 법납 45세에 입적하셨습니다.

1 고암 종정 선사와 만화 선사 (1970년대 초반)

중앙의 고암 스님과 좌측 만화 스님, 우측 유해룡 스님, 고암 큰스님은 1967년 종정에 취임한 이후 여러차례 종정 역임을 했지만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양의 미덕을 실천한 자비보살로 유명합니다.

2 한암 선사 부도 제막식 기념사진 (1959)

1959년 8월 23일 한암 스님 부도와 비 제막식을 기념한 사진입니다.

앞줄 좌측부터 희운, 만화, 탄허, 양청우, 인홍 스님

1



2



3 불교정화운동 후 기념사진 (1964)

불교정화운동은 왜색 불교와 친일 잔재를 제거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재건하여 오늘날 조계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1964년 월정사 정화를 기념하여 촬영한 것으로 탄허 스님, 만화 스님, 청담 스님, 일타 스님, 월탄 스님 등이 보입니다.

4 월정사 대웅전 상량식 기념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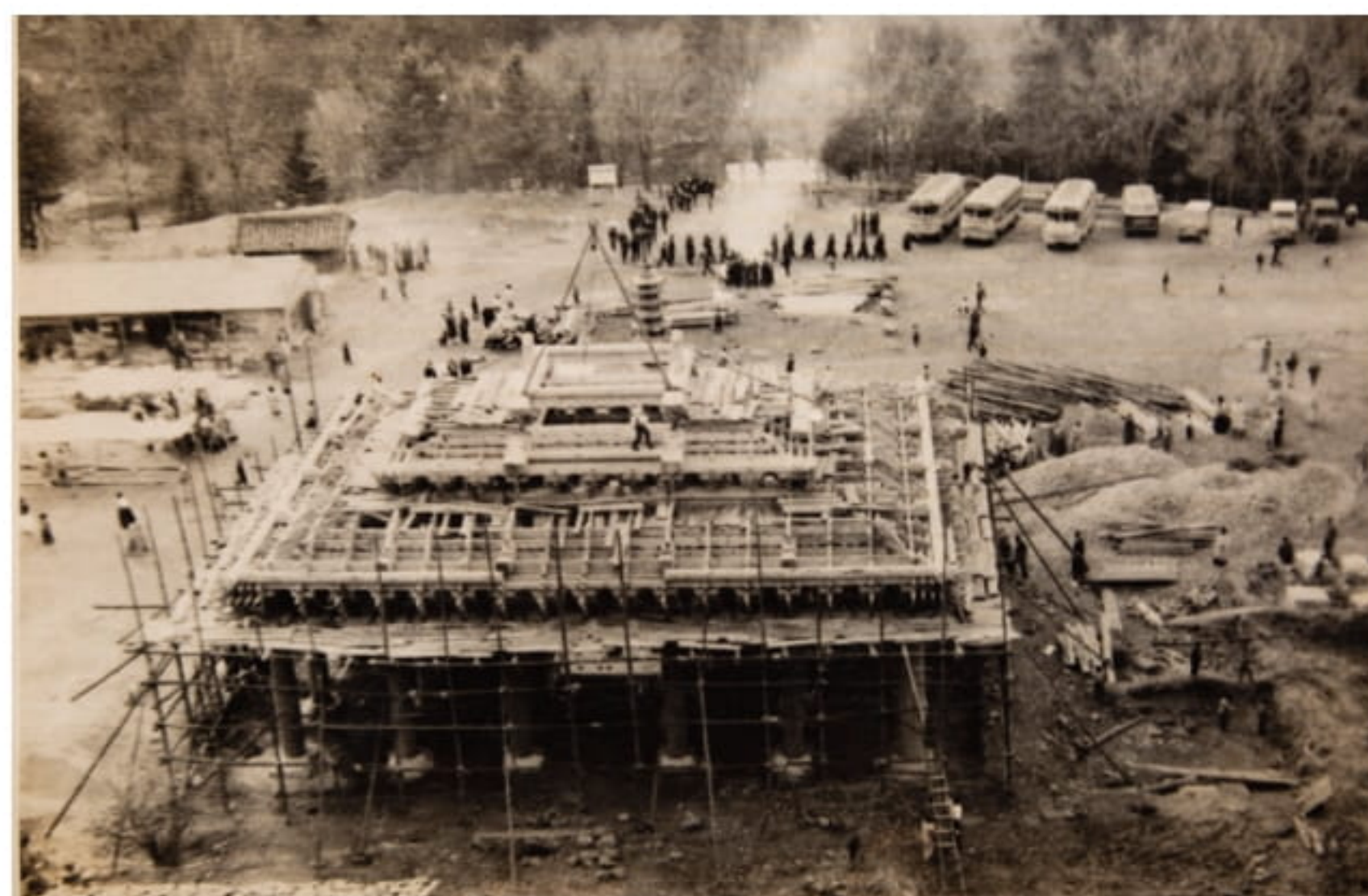
1966년 11월 6일 대웅전 상량식 당시 모습으로 상량식에 참석한 성철 스님과 함께 촬영한 사진입니다.

좌측부터 탄허, 성철, 만화 스님

3



4



5 월정사 대웅전 낙성식 기념 (1969)

1969년 10월 13일 월정사 대웅전 낙성식을 기념한 사진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칠불보전 등 가람이 전소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감격스러운 날이었으며 대웅전 낙성의 주역은 탄허, 만화 스님이며 대시주자는 조중훈 회장이었습니다.

앞줄 좌측부터 00, 만화, 추담, 탄허 선사, 김정일 여사, 조중훈 회장, 청담, 월산, 00, 도원, 성수, 일연 스님 뒷줄 좌측부터 강법해 스님, 현해, 동수, 김법해 스님, 뒷줄 우측 두번째부터 혜성, 인보, 자중 스님



6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해체보수 (1970)

천년의 시간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이 언제부터인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해체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석탑 우측엔 목탁을 치며 염불기도를 드리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7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봉안식 (1970)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 48호) 해체 복원 후 사리 재봉안식 모습입니다.

만화 스님께서 사리 봉안을 위해 하얀 천이 깔려 있는 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그 뒤로 탄허 스님, 대하 스님 등이 보입니다.

1970년 석탑해체복원 과정에서 사리와 함께 은제도금불입상 1구, 청동 거울 4점, 금동 향합, 향주머니 등 12점의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었으며 출토된 사리를 다시 봉안하는 장면입니다. 12점의 사리장엄구는 박물관으로 이운되었으며, 보물 제 137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6



7



8 월정사 동당 중건 상량식 (1979)

1952년 법당과 대중방을 함께 쓰던 인법당을 준공하고 1962년에 옛 동별당이 중건되었습니다. 이후 인법당과 동별당이 있던 자리에 크게 동당(설선당)을 신축하였으며 사진은 동당 신축 당시 상량식 장면입니다.

8



9 만화 선사와 제자들 (1980년대 초반)

만화 스님은 1980년대 초 월정사 주지를 사임하고 한암 스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원사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은 상원사 문수전 계단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것으로 앞줄 가운데 만화 스님이 앉아 있고 그 뒤 좌로부터 정수, 정건, 화광, 나우, 정념, 일관 스님의 모습입니다.

9



10 만화 선사 수연 기념 (1982)

1982년 8월 19일 수연을 맞이하여 문도, 제자 등 2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 만화 스님의 수연을 경하했습니다.
앞줄 중앙이 만화 스님이며 좌로부터 00, 원행, 현해, 현우, 월면, 현오 스님이 앉아있고 뒷줄 우로부터 정수, 정념 스님입니다.

11 만화 선사 다비식 (1983)

만화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 선원에서 수선修禪 중 선당에서 1983년 12월 9일 열반하셨습니다.

10



11



1 만화 선사 목적

만화 스님은 출가 후 상원사에서 삼본사수련소(1936-1940) 과정을 수료하고, 탄허 선사와 인재양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목적은 만화 스님의 친필로 주역, 대학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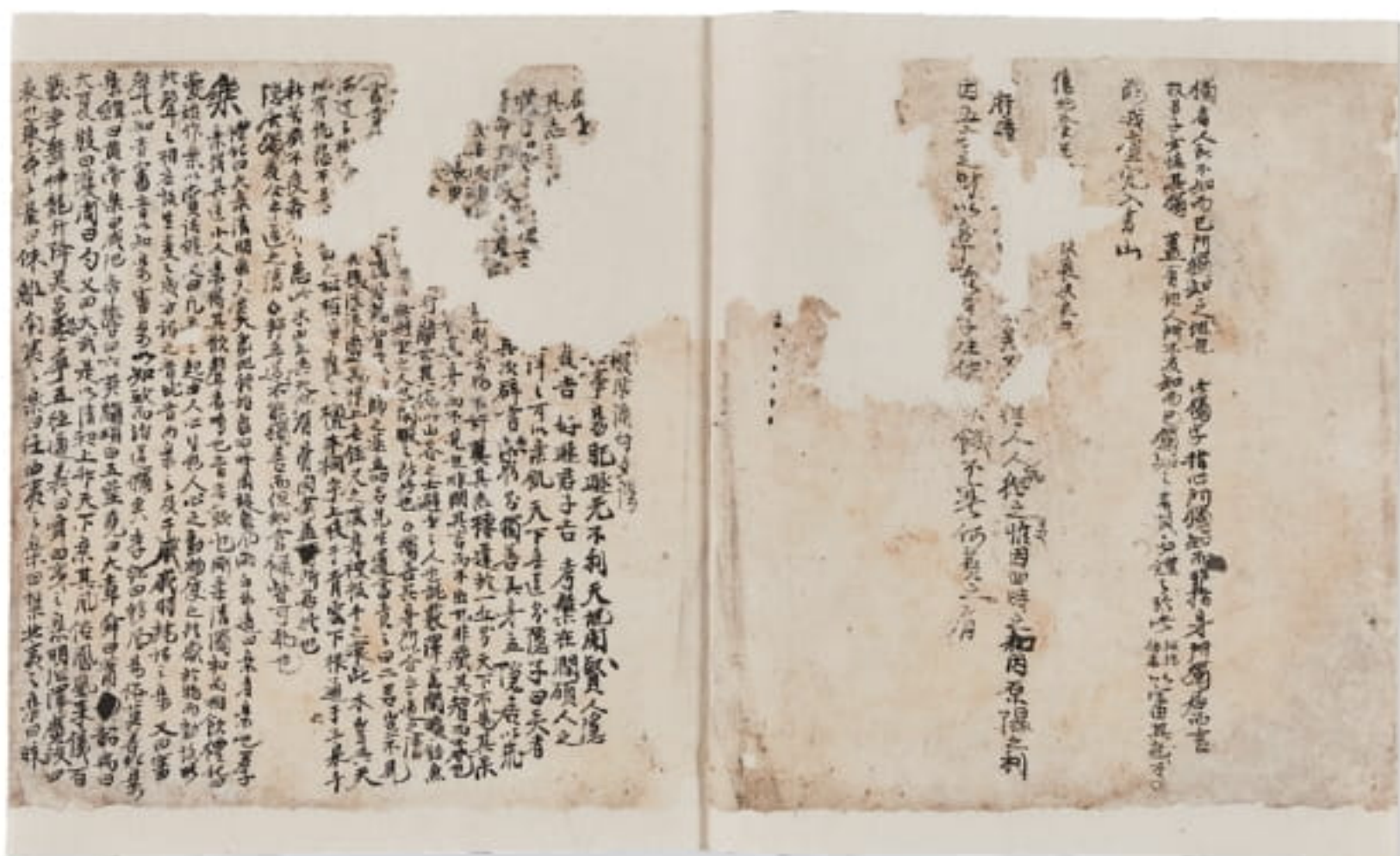
2 화엄요해 (1964)

1964년 탄허 스님이 방산굴에서 오대산수도원을 열었을 당시 월정사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복사기가 아닌 파라핀 원지 위에 철필로 글자를 새긴 후 원지를 등사기 아래에 붙이고 잉크를 묻힌 롤러를 굴러 복사하는 방식의 등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첫 장에 만화 스님의 친필 이름이 적혀 있어 오대산문 재건에 헌신하는 중에서도 학문 정진을 지속하였음을 보여줍니다.

3 월정사중건상량문 (1952)

월정사가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후 2년만인 1952년 처음으로 당우 한채가 준공되었는데 지금의 동당자리에 있었던 인법당이었습니다. 이 상량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월정사를 다시 중창한다는 선언이었으며, 이후 월정사의 주불전인 적광전을 비롯한 많은 전각이 세워져 전소 이전의 가람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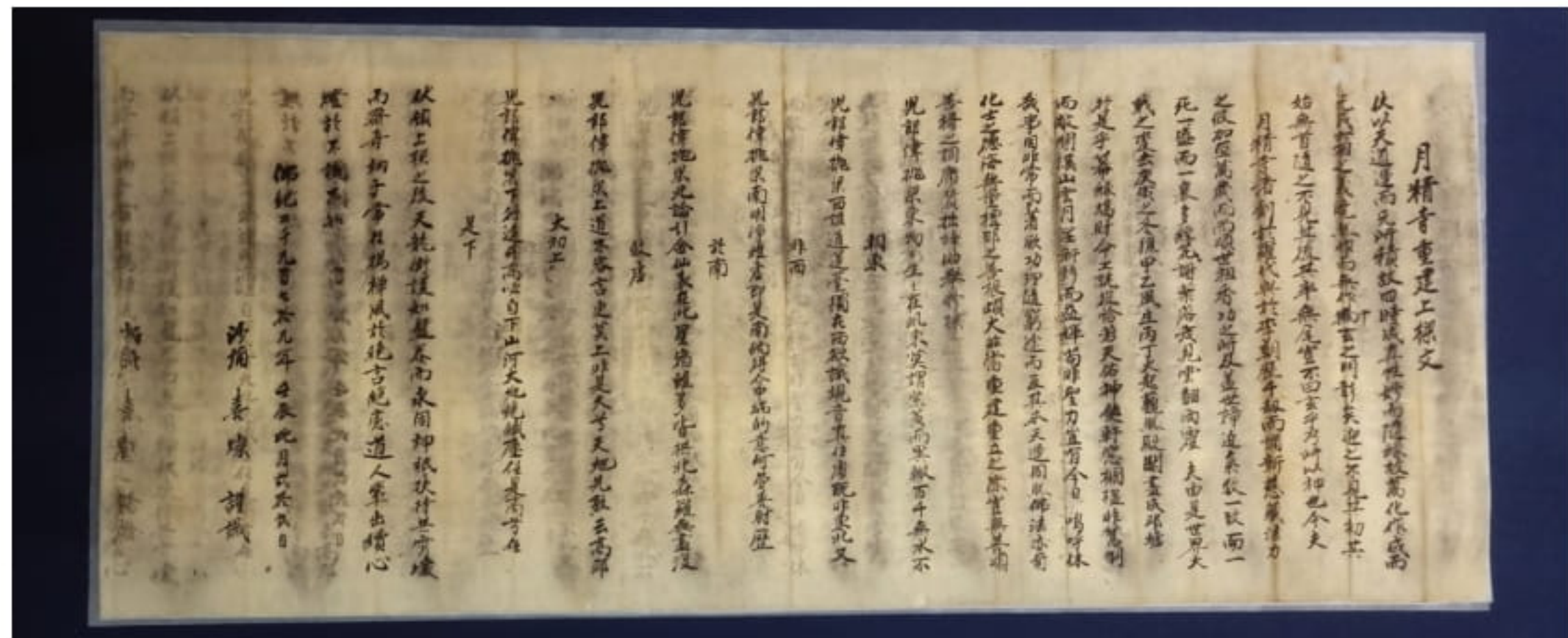
1



2



3



THREE ZEN MASTERS OF ODAESAN MOUNTAIN

유품과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 오대산 三大和尚

한암중원 · 탄허택성 · 만화희찬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 월정사성보박물관

총괄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

전시자문 인보스님, 현각스님, 원행스님

전시총괄 해운스님(김정귀)

전시기획 자엄스님(홍순문), 홍순욱

전시진행 김경옥, 김원중, 서은호, 임진호, 조유나, 황경아

발행인 해운스님(김정귀)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월정사성보박물관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76 Tel 033) 339.7000

<https://wjssm.kr/>

디자인 · 제작 고려출판사